

민주, 계파해체 요구 ‘붓물’ 속 변화는 ‘미미’

대다수 “우리는 계파 아니다” 주장

혁신 핵심과제 불구 해체 움직임 없어

민주통합당 내에서 계파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계파 패권주의가 지난해 총선 및 대선 연패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넘어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투명한 공천, 당무운영 등을 방해해온 고질적 폐습이라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비대위 산하의 정치혁신위원회가 계파 중심의 무능한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의원이 앞다투어 ‘계파주의 청산’을 주문 회두로 내걸고 있다.

김용업 의원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모든 계파의 동시적 해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계파 정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소수였던 민주화운동 세력의 응집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기록권을 공고히 하

는 수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정 계파와 과벌이 조직과 재정, 당권, 공천권을 독점하고 계파구 행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을 입장에서는 당적을 맡거나 차기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계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각 계파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노(친노무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정세균계, 손학규계, 486, 비주류의 쇠신연대 등이 계파로 거론되면서 실제로 당 전반에서 제기되는 계파 해

체 주장에 부응하는 움직임은 별로 없다.

지난달 19일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 모임인 ‘진보행동’이 계파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해체를 선언한 것이 전부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계파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가 하면 계파 해체가 현실 정치 상황을 간과한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친노 진영 인사들은 친노라는 계파가 있는데 어떻게 해체하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평연은 특정 인사가 중심이 아닌 가치와 노선 중심이라며 계파가 아닌 정파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파 해체가

민주당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됐지만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

당 비대위 산하 정치혁신실행위원회도 최근 회의에서 계파 해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소위 계파의 수장이나 중심 인사들이 직접 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친노 진영 인사들은 친노라는 계파가 있는데 어떻게 해체하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평연은 특정 인사가 중심이 아닌 가치와 노선 중심이라며 계파가 아닌 정파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파 해체가

검찰총장·해수부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동욱 ‘채택’ 윤진숙 ‘난항’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가볍게 넘은 반면 같은 날 청문회를 마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질 논란이 불붙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채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18대 국회부터 법사위에서 실시된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 야당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검사로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능력, 검찰개혁 의지, 도덕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명 초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윤진숙 해수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 사청문화에서 윤내정자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고 정책 파악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내정자가 2001년에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했다가 2003년에 매각할 때 1억6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논해수위 여야 간 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합의하는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여당 측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투기 의혹이 소멸되면 청문보고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 이어서 4일 윤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민주 지지층 흡수 안철수 ‘광폭행보’

노원 병 보선 접촉 늘려

4·24 서울 노원 병 보선선거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흡수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특정 정당과 상관없이 “새 정치의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는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벌어진 후보로 분류되는 그의 지지층 중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안 후보는 지난 1일 이 위원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위로의 말을 건네며 “앞으로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할 바이다.

안 후보 측은 현재 이 위원장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위원장과 연결돼 있는 지역의 민주당 당원, 대의원과도 접촉면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 위원장과 민주당 지역 당원, 대의원의 선거 지원과는 별개로 민주당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은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민주당 지역 조직의 지원은 받으면서도 당 차원의 선거 지원에는 거들 선을 긋는 것은 향후 정치 행보에서 민주당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판세가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 측에서 민주당 지지층 흡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안 후보가 민주당에는 거리를 두고 있어 당선이 된다면 서로의 관계 설정이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정무수석 ‘黨·靑 소통강화’ 협조 당부

여 초선의원 조찬모임서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은 3일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당청 간 ‘소통강화’를 약속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그동안 양측의 소통이 부재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정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수석과 김선동 정부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당정청

워크숍에서 (소통 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달게 받는다”며 “앞으로 당정청 관계에 있어서 상호 협조나 이해를 구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또 “여기 오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에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5선의원을 하는 동안 의회주의자였고,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와 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는 “당정청은 공동책임, 무한책임을 함께 져야 할 3각축이나 적극과 와 달라”면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달라. 여당 의원들과 다양한 형태·구도로 소통하는 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초선 의원들은 토론이 본격화되자 “여태까지 왜 이런 자리가 없었는가”라는 지적을 시작으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현 시스템은 폐쇄적이고 전반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므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통의 통로를 공식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합종연횡’ 최대변수로

친박·비박 대결구도...서로 연대가가능 높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레이스가 조기에 불붙으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을 한달 가량 앞둔 3일 현재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4선의 이주영, 3선의 최경환 의원이, 비박(비박근혜)계에서는 5선의 남경필, 3선의 김기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우선 친이(친이명박)계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친박 대 비박 구도가 형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친박의 이주영·최경환 의원이, 비박의 남경필·김기현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각각 연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주영·최경환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한차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주영·최경환 의원이 만나 서로 출마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친박계에서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의 향배가 주목된다.

또한, 이·최 의원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남경필·김기현 의원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남 의원은 당내 비박계는 물론 중립·중도 그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고,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대야 협상을 주도한 것이 감점이 된다.

남·김 의원도 한차례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수시로 전화접촉을 통해 원내대표 경선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남경필·김기현 의원이 ‘각자 원내대표 레이스를 펼치며 서로 결별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의논해 결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친박계 후보를 꺾으려던 비박계 연대가 전개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가령 친박 표가 이주영·최경환 의원으로 분산되고, 비박 단일후보가 나설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민주당 광주시당은 3일 공고를 통해 오는 5일 하루 동안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접수를 받고 밝혔다. 복수 후보가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일 오후 5시 추첨을 통해 후보 기호를 정하기로 했다.

시당위원장 선출은 오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이뤄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1일 대의원대회서 선출

차기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임내현(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의 합의 추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오는 21일 시당 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웅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직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체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웅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만

평강한의원 이환웅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

임대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6층고급주택

▶병/의원, 약국, 커피숍,편의점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매매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매매가 14억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주인 직접 상담합니다. H.P : 010-3605-5000